

반말의 비인문성 철학자가 본 한국의 언어연구

정대현
(이화여자대학교)

1. 문제 제기 : 언어연구 주제의 다양성

언어연구자는 그의 연구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연구자는 그가 속하여 있는 전문가 공동체의 패러다임의 영향, 제약, 규제, 또는 지배를 부분적으로 받을 것이다. 어떤 전문가 공동체도 소속 연구자에게 영향이나 지배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제약이 '부분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전체적'이라고 간주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습관적 경향성은 비단 언어연구만이 아니라 철학을 포함한 많은 학문 분야에서 나타난다.

필자에게 주어진 "철학자가 본 한국의 언어연구"라는 주제는 언어 연구가 한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상적 차원의 분석을 기대하지만 필자의 한계나 배경의 까닭으로 이 논문에서는 언어 연구 주제가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위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접촉한 몇 한국 언어학자와 공유하는 경험에서 시작하여 언어철학의 주제의 관점으로부터 반성을 하고 한국어 사용의 인문적 확장이 언어 연구의 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 제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한국어에서의 반말이 어떻게 비인문적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몇 언어학자들은 1970년대에 몬테규(R. Montague)의 내포논리가 언

[Keywords] language studies(in korea), ban-mal(non-honorific exprssion), hierarchical regimentation, humanization, grades of differences, social positions

어 의미를 조명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주제의 연구와 한국어 조명에 노력하였다. 프레게의 외연논리보다는 가능세계의 양상을 도입한 내포논리가 동의어는 아니면서 동연적인 표현들의 의미 조명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몬테규의 내포논리는 진리개념의 상정, 진리조건의 제시,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한 세계라는 것의 존재론적 성격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지만 명제 태도의 문제를 얼마나 조명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에 당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의 몇 언어학자들은 명제 태도를 조명할 수 있는 대안을 상황의미론에서 찾고 있었다. Barwise & Perry(1983)는 기존의 의미론들의 한계를 주시하면서 의미의 구조를 상황(situation)들의 관계에서 밝힐 것을 제안한다. 자연언어에서의 발화(utterance)라는 것은 표현의 의미와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의 어떤 구조에서 부여된 해석(interpretation)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황의 개념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석이라는 것도 상황들의 어떤 모음일 뿐이며 그리고 표현의 의미라는 것도 한 종류의 상황인 발화와 서술된 상황의 두 자리 관계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와이즈와 페리는 이러한 상황의 개념에 기초한 의미론을 구성하여 그 동안 언어철학의 과제로 되어 왔던 태도의 문제에 조명할 것을 시도한다. 이러한 상황의미론에 입각하여, 'P를 본다'라는 것을 지각의 논리로 분석하고 'P를 믿는다'라는 것은 개념논리로 조명된다. 빼에르가 동일한 도시에 대해 *Londres est jolli*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London is not pretty*라고 믿는 것은 상황의미론으로 긴장 없이 조명된다는 것이다(정대현 2001, 57-98).

그러나 '빼에르의 두 믿음이 인지적으로 어떻게 일관될 수 있는가를 보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과제가 아닐 것인가! 언어학자 이기용 교수와 필자는 전통적 의미론의 진리 개념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가설에 공감하면서 한국어의 맞음 개념이 하나의 대안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공동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여러 차례 토론, 협의, 서신 교환을 하였고 이익환

1) 이익환(1986, 316-322)도 이 책에 대한 서평에서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다. 선우환(2000, 2-18)은 크립키의 문제제기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고 있다.

교수, 이정민 교수도 이 과정에 참여하여 필자는 많은 통찰로써 도움을 얻었다. 개인적인 형편으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필자는 이러한 관심의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정대현 1997, 291).

언어에 대해 철학은 그 심층적 논리에, 언어학은 그 현상적 논리에 주목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철학은 언어 계산성에 착안하여 술어논리를 이룩하였고 언어학은 자연언어의 번역기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것은 심성 언어의 논리나 사용 현상인 것이다. 철학과 언어학은 진리 개념 또는 외연적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언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지만 그렇지 않는 언어 부분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심성 언어에 대한 이해나 조명의 작업은 진리 개념 이외의 도구 개념에 의하여 시도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언어학과 철학은 이러한 주제의 연구에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철학과 언어학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또 하나의 주제는 언어 연구를 서술적 차원에 한정할 것인가 또는 그 당위적 차원에 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의 주제이다. 철학은 언어의 심층적 논리를 탐구하고 언어학이 그 현상적 논리를 연구할 때 이 작업은 다분히 서술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 사용은 언어 공동체에 의해 수행될 때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잘과 잘못의 구분이나 경계의 개념적 작업은 철학과 언어학의 몫이 아니라면 어떤 분야의 몫일 것인가? 언어 사용이 규칙 준수적이라면 잘과 잘못의 구분은 선악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언어 실천의 인문적 가치 방향의 구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철학과 언어학은 언어 사용의 당위성 차원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은 한국어 사용의 어떤 경우는 비인문적이라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의 반말의 비인문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반말은 전통적으로 정당하다고 수용하여 왔던 생활양식의 반영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 글은 반말이 비인문적인 그래서 잘못된 실천이다라는 기본 가설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 조명은 몇 가지 보조 가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반말이 전제하는 계층적 구조는 언어 사용의 자기 파멸적 특징을 갖는다, 둘째, 반말

의 상대 개념인 “말트지”의 논리는 언어 사용의 평등성이다, 셋째, 나이 계층의 실체성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2. 반말 사용의 계층적 구조

한국어에서의 반말 사용은 계층성을 갖는다. 하나의 예로, 식사 권유 개념의 표현들을 들어 보자. (1) 진지 드시웁소서; (2) 진지 드시지요; (3) 진지 드십시오; (4) 식사 드시지요; (5) 식사 하십시오; (6) 밥 먹으시지요; (7) 밥 먹으십시오; (8) 밥 먹지요; (9) 밥 먹어요; (10) 밥 먹어; (11) 밥 먹어라; (12) 밥 처먹어라.²⁾ 식사 권유 표현의 목록 중에서 어떤 것이 반말인가? (12)번인가 아니면 (10)번 이상인가?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관점은 반말이 객관적 표현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 반말이 화자-청자 독립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말 객관론의 관점은 지지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반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부장이 청자가 되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식사 권유를 듣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왕회장, 회장, 사장, 전무로부터 들을 수도 있지만 그가 지휘하고 있는 과장, 계장, 주임, 주사, 운전사, 경비 등으로부터도 들을 수 있다. 또한 그 부장이 화자가 되어 그 회사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식사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말의 객관론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반말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관점은

(나1) 화자 S가 X 개념의 한국어 표현 xi를 청자 H에게 사용했을 때 그 xi는 H에게 반말이다

<-> H는 S로부터 한국어 표현 xi-1 이하를 듣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2) 식사 권유 개념의 표현들에 대한 이러한 순서 계층성은 필자의 언어적 직관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순서 계층성에서 그 포괄성이나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반말 개념의 관계적 구성으로 보인다. 반말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어떠해야한다 라는 믿음이나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구성이 “정당성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너무 주관적이라고 보이는 경우

(나2) 화자 S가 X 개념의 한국어 표현 xi를 청자 H에게 사용했을 때 그 xi는 H에게 반말이다

<-> H는 S로부터 한국어 표현 xi-1 이하를 듣는 것이 정당하다

라는 객관적 판본을 선택하거나, 양자의 어떤 혼합형 (나3)이나 (나4)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변형들은 모두 관계적이다.

반말에 대한 설명에서 객관론보다는 관계론을 수용한다고 하자. 관계론은 어느 형태 이던지 간에 반말 사용의 정당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나5) H는 S로부터 X 개념의 한국어 표현 xi-1 이하를 듣는 것이 정당하다

-> X 개념의 한국어 표현 xi 들에 대응하여 H와 S는 계층적 위계들 Ci의 어떤 다른 단계에 각기 속한다.

이러한 반말 사용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반말 사용의 정당화를 위한 핵심적 사안은 “한국어 표현 xi들에 대응하여 H와 S는 계층적 위계들 Ci의 어떤 다른 단계에 각기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조건인가? 이 조건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조건은 초견적으로 서술적 조건으로 보여 정당화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정당화의 구조를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조건이 구성되었을 시절의 조선조 중기의 상황을 몇 가지로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선조 사회는 선명한 사회 계층을 가지고 있었다. 왕과 신하, 양반과 상민, 남자와 여자, 장유유서 등의 경계들이 뚜렷했다. 둘째, 조선조 사회의 성원들은 각기 하나의 계층에 속하여 있었다. 하나의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아니었다. 셋째, 그 계층의 경계는 음양 관계를 실체화했던

것처럼 자연의 질서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조선조의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댁은 뉘시오?”라는 물음으로 “화자와 청자가 한국어 표현 xi들에 대응하여 소속해 있는 계층적 위계”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위계에 대응하는 표현의 위계를 찾아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조선조의 세 가지 상황 조건 중에서 처음의 둘은 사실적 조건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존재 질서로서의 셋째 조건이다. 이 조건에 의하여 기존의 계층은 선명성을 가지며 경계 간에 넘나들 수 없는 간격이 구성되는 것이다. 그들이 신봉하였던 존재 질서로서의 사회의 위계적 계층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정화되고 신성시되면서 다음과 같은 함축을 갖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6) 사회의 위계적 계층 C_i 에 속하는 사람은 계층 C_{i+j} 에 속하는 사람보다 더 균자적이고 덜 오류적이다.

조선조 사회의 존재 질서는 능력 질서를 함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 더 온전한 질서로 보였을 것이다. 한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반말은 이러한 구조에서 존재론적, 인식론적 정당성을 가졌을 것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윗분”이나 “아래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위계적 계층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함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어의 반말은 조선조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위계 계층 구조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겠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을 몇 가지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선조 사회 질서는 인간 위계 계층을 실체화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 계층의 실체화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인간론일 것인가? 우리는 이미 실체론적 인간론의 허구성이나 왜곡성을 보아왔다.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층들의 필연적 충돌을 위해 두 계급을 실체화 하는 개념적 구조를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농부이거나 자본가이면 그 손자나 손녀도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이거나

부르주아 여야 한다. 음양론을 기능적이나 부사적으로 해석할 때 매력이 있지만 실체론적으로 취할 때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라는 이분법에 빠진다. 공산주의나 실제 음양론은 인간을 두 계층으로만 실체화하지만 조선조의 인간 위계론은 그 계층들을 더 세분화하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준다고 생각한다.

둘째, 반말 사용의 정당화는 한 개념의 표현들의 위계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위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인간들의 위계에 실체성이 없고 편의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반말 사용은 추정적이다. 앞에서 예로 든 회사의 부장의 경우를 다시 보자. 그 부장은 소위 ‘윗분’들로부터 반말이나 그 비슷한 말을 들을 것이고 소위 ‘아래 사람’들에게는 반말이나 그 비슷한 말을 할 것이다. 부장이 청자가 되건 화자가 되건 간에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말의 문법은 조선조의 실체적 인간론을 상정하면 “온전하게 정당화 된다”. 반말은 군대와 같이 위계성이 강하게 조직화된 사회에서 더 잘 유지되지만 학회에서와 같이 위계성이 약한 사회에서는 유지되기 어렵다.

셋째, 반말은 언어 사용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언어 사용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므로 대화적이어야 하고 그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적 인격의 자유로운 표현일 수 있을 때 더 풍부해지고 기여적 이게 된다. 그러나 반말은 어떤가? 반말은 상하 관계의 위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화는 어렵고 명령자로부터 피명령자에게 이르는 일방적 지시이기 쉽다. 반말은 화자의 권위나 지식권이 청자로부터 보존되는 제도적 규칙의 일부이다. 또한 반말은 화자가 청자에게 저지르는 폭력이기 쉽다. 언어의 모든 일방성이 그러한 것처럼 반말도 상대방을 대화의 평등한 참여자로 간주하기 보다는 그 일방성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 개성, 인격, 의견을 최소화하지 않는 구조를 갖는다. 신체적 폭력이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몸의 활동의 제약이라면 언어적 폭력은 개념적으로 가해지는 마음의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일 것이다.³⁾

3) 조선조 사대부 집안의 남녀는 존대어를 상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3. “말 트자”의 논리

한국 일상 언어에 “말 트자”라는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은 한국어 반말 사용의 비인문성을 조명하는데 중요한 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 트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말 틈은 언어체계로부터 독립해서 파악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인다. 말 틈은 언어 체계 안에서 그 성원들이 갖는 믿음들, 다른 표현들, 가치의 지향, 화자와 청자의 관계 등과 같은 복합적 요소들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말 틈이라는 개념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말 틈의 개념은 어떤 사안들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말 트자라는 개념은 어떤 기존의 질서에 대한 대안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안인 기존의 어법은 무엇일 것인가? 그것을 ‘위계적 언어 사용’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말 틈의 개념이 전제하는 것은

- (다1) 화자-청자간의 의사소통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어떤 질서가 있다;
- (다2) 특정 사회가 부과한 화자-청자간의 인위적 인간 계층 구조를 따르는 위계적 언어 사용은 평등하지 않거나 자유롭지 않다;
- (다3) 위계적 언어 사용은 의사소통 행위의 기본 목표를 향한 과정에 일관되지 않다;

와 같은 것이다. 이 둘이 말 틈의 전제 조건인 까닭은 이들이 없다면 말 트기를 할 정당한 이유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을 트는 경우 이것이 함축하는 사안들이 있을 것이다. 화자와 청자가 말을 트는 경우 두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에 들어서고 이 관계에서 양자는 인격적 관계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인격적 관계가 말 틈의 자동적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위계적 언어 사용에서는 그러한 화자-청자 간의 인격적 관계의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다. 화자

가 청자에게 반말을 사용할 때 화자는 ‘청자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반말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교양 있는 많은 화자들은 ‘청자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반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계적 언어 사용에서의 화자의 ‘청자 인격 존중’은 언어적이거나 예의적인 것일 수 있지만 실제적이거나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노예상이나 노예주가 많은 노예 중에서 어떤 노예를 ‘인격 존중’한다고 할 것이다. 또는 이들이 모든 노예를 ‘인격 존중’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예들에 대한 ‘인격 존중’은 언어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말 틈 개념의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 몇 가지 실례에 의해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고층 아파트의 28층에 살아 본 적이 있다. 승강기를 타게 되면 동승자와 좁은 공간 안에서 상당한 시간을 같이 보낸다. 초등학교 초급 어린이와 단 둘이 타게 되는 경우 어린이 무료함을 달랜다는 목적으로 “야, 너 몇학년이냐?”라고 묻곤 했다. 이 물음에서 어린이로부터 대답을 들을 확률은 20% 정도였다. 그러나 “어린이, 몇학년이지요?”라고 묻는 경우 대답을 들을 확률은 7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어린이를 향한 나의 반말은 어린이의 의도에 관계없이 어린이를 나의 위계적 인간 계층 구조 안에로 납치하여 나의 위계적 언어 사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된다. 나의 반말은 어린이를 향한 언어적 폭력이 된 것이다.

1990년에 한국의 대학생 일단과 같이 중국을 시찰할 때 조선족 중국 대학생들이 안내하였다. 조선족들은 모두 언제나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유난히 한 남학생과 한 여학생은 서로에만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 까닭을 물었다. 두 사람은 약혼할 때 까지 서로 한국어로 말하였지만 약혼 뒤로 중국어로 대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어 말씨 사용에 대해 어른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고치고자 하였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았고 노력할수록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중국어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위계적 언어 사용은 화자-청자간의 나이만이 아니라 남녀의 위계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중국어의 평등적 사용에 친숙해진 문맥에서 이들은 그 위계의 경계들이 선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 틈이 인격적이고 위계적 언어 사용이 비인격적이라는 가설은 보다 명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명료화는 인문성 개념을 통해 시도될 수 있다.

- (d4) 인문학(성)은 인문대학의 여러 분야들의 학문이나 그 분야들의 학제적 활동(의 성질)이다
- (d5) 인문학(성)이란 인간의 문자나 비문자적 표현을 통해 자연적, 사회적 질서의 제약으로부터 자유인의 가능경험을 모색하는 노력(의 성질)이다.
- (d6) 인문학(성)이란 일차적으로 문자, 그리고 이차적으로 비문자를 포함한 문화활동을 통해 사람다움의 표현을 모색하는 노력(의 성질)이다

인문학 또는 인문성에 대해 제도적 가설은 아니지만, 개념적 가설과 전향적 가설의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거나 간에 말을 틈 언어 사용은 개방적이어서 과학 공동체의 언어 사용(모든 명제는 가설이다)과 통하여 있다. 그러나 위계적 언어 사용은 위와 같은 인문성의 전망에 대해 그 당위적 정당화나 그 존재론적 필연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말 트기는 인문적이지만 위계적 언어사용은 반인문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틀 것인가? 말 틈 개념에 들어 있는 한 가지 요소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 (d7) 말 트기는 ‘화자-청자 간 반말 사용하기’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때 오해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화자-청자 간 반말 사용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각기 C_i 와 C_j 에 속하여 있으면서 이들이 계층에 따른 X 라는 개념의 한국어 표현 x_i 와 x_j 를 사용하지 않고 x_k 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해인 까닭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러한 위계적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x_k 에 대응하는 인간 위계의 C_k 로 동반 진입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가능하거나 이들이 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둘째, 이러한 말 트기는 언어 위계적 단계 내부에서의 말 트기 일 수 있고 인간 위계적 계층 내부에서의 자

유일 수는 있지만 위계 관통적 말 트기나 자유일 수는 없다. '노예 단계 내부의 자유'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관찰에 설득력이 있다면 말을 어떻게 터야 할 것인지의 전망이 보인다라고 생각한다.

(다8) S와 H는 말을 튄다 <->

- (8.1) S와 H는 그들이 속하는 Ci와 Cj가 전제하는 인간위계 계층구조를 부인한다;
- (8.2) S와 H는 그들이 사용했던 위계적 한국어 표현 xi와 xj가 한국어라는 것을 인정한다;
- (8.3) S와 H는 존중, 평등, 자유를 상호 보장한다고 판단하는 한국어 표현들 xk로 구성된 언어 Lk를 사용한다.

이러한 말 트기는 단순한 반 말 하기가 아니다. 말 트기는 말 막기가 보장한다고 믿는 존중을 부인하지 않는다. 말 막기가 보장하는 존중은 일방적이지만 말 트기는 존중을 수용하고 상호적으로 취한다. 말 트기는 더 나아가 평등, 자유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국어 공동체는 말 트기의 시작을 이러한 논리로 출발할 만 하다. 한국어는 현재 위계적 표현들로 충만해 있지만 말 트기의 언어 문화가 정착된 어떤 시점에서는 그러한 위계적 표현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4. 나이 계층은 어떻게 실체적인가?

말 트기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나이 계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이 계층 문화가 한국만큼 선명하고 철저한 사회가 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물음을 물으면서 의아해 하고 궁금해 하면서도 더 추적하기를 주저한다. 아마 문제 해소의 길이 막연해서일 것이다. 한국의 검찰 인사가 있을 때 마다 한국 사회는 동기 검사의 승진과 동시에 동기 검사들의 동반 퇴진을 보아 왔다. 군대 생활을 해 본 사람은 특히 즐

병들은 군번 문화를 기억한다. 같은 일병이라도 군밥 한 그릇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나이 계층의 문화는 대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 학년 1년의 차이를 무시하는 학생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 도처에서 발생한다.

한국 사회에서 다른 분야의 위계적 인간계층이 소멸하고 있음에도, 나이의 위계 계층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나이에 의한 위계적 인간 계급이 가장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고 선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심층적 구조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관찰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전통적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序)”는 차례적 순서를 가르킨다. 그러나 장유유서의 가치의 문맥에서 그 서는 차례적 순서가 계급적 순서를 함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달리 이해하는 방식이 있을 것인가? “장과 유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직역에 올바른 내용을 어떻게 달리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은 가설이 제안될 때까지는 이러한 함의 내용을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라1) 장유유서는 차례적 순서와 계급적 순서의 일치를 함의 한다

라는 명제는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일까? 그 함의는 질서, 법칙, 또는 합의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제안은 “그 정당화는 그 함의의 관계를 뒤집어 놓음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라2) 장유유서는 계급적 순서에 따라 차례적 순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명제이다

로 이해된다. 이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함의가 정당화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다. (라1)과 (라2)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째, 전통적 한국 사회의 나이 계층 언어는 실체적이다라는 가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1)과 (라2)의 관계는 실체성 가설을 도입하지 않고 어

땡게 조명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장유유서’라는 한자어는 ‘長幼有序’라는 한자에 근거한다.⁴⁾ 한자어는 한국어이지만 한자는 중국어이다. ‘엠비시’라는 영자어는 한국어이지만 ‘MBC’라는 영자는 영어인 것과 같다. 한자어는 소릿 글이지만 한자는 뜻글이고, 우리 조상들은 한자를 학문언어로 사용하면서 그 뜻글의 내용을 개념화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개념성을 실체화하기 쉬웠을 것이다. ‘長幼有序’라는 개념성에 따라 세계가 실재한다고 믿는 경우 (라1)과 (라2)의 관계는 그러한 실체성 관점으로부터 일관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대 한국의 나이 계층 언어는 한국 역사에서 구성되었지만 이것은 나이 계층만이 아니라 총체적 위계 계층 인간론의 반영이라고 상정해 볼만하다. 이는 널리 알려진 상식으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는 가설이다. 신라 시대의 세속오계(世俗五戒: 事君以忠·事親以孝·交友以信·臨戰無退·殺生有擇)는 지도적 계급인 화랑의 정신적 기저였고 이는 사회 일반의 기준이 되고 후대에 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유학 전통의 삼강(君爲臣綱·父爲子綱·夫爲婦綱)과 오륜(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가치가 한국사회의 주류적 전통이 된 것은 세종대왕이 집현전 부제학 설순(乾循) 등에게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3권 1책을 짓게(1431년, 세종 13) 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조선과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부자·부부 등 3강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를 각각 35명씩 모두 105명을 뽑아 그 행적을 그림과 글로 칭송한 책이다. 각 사실에 그림을 붙이고 한문으로 설명한 다음 7언절구(七言絕句) 2수의 영가(詠歌)에 4언일구(四言一句)의 찬(贊)을 붙였고, 그림 위에는 한문과 같은 뜻의 한글을 달았다. 그 후 이 책은 1481년(성종 12)에 한글로 번역되어 간행되었고, 여러 차례 중간되어 도덕서로 활용되었다. 또한 조선조 정조는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5권 4책을 같은 방식으로 지어(1779, 정조 21년) 도덕교과서로 사용하였다. 한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위계적 인간 계층 제도가

4) 정대현, 「한글전용의 의미론」, 『세계의 문학』, 1994년 가을.

현대 한국사회의 나이 계층 언어의 깊은 뿌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이 계층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 몇 가지 관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라3)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문장을 보자. 이 말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첫째, 노인들이 나이에 산수적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의 발화일 수 있다. 둘째, 나이 계층 언어를 극복하기 위해 계층 인간론을 부인하는 의미의 주장일 수 있다.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부터의 사용이지만 양자는 한 가지를 공유한다. 그것은 나이는 실체화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나이 실체화는 장유부담(長幼負擔)인 것이다.

다음으로, 지하철 객차마다 달고 있는 “경로석”이라는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 표지판은 그러한 역할만을 하는 것 같지 않다. 어떤 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젊은이에게 “이 자리는 경로석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경우도 있다. 그 표지판을 배려의 표현으로가 아니라 노인의 찾을 권리나 젊은이의 양보의 의무로 해석한 결과일 것이다. 노인은 그 표지판 앞에서 “이 자리는 경로석이다”라고 말하여 필연적 진리를 선포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겪거나 본 적이 있는 젊은이는 “경로석”을 “피로석(避老席)” 정도로 인지할 것이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필요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려가 자율성의 공간 안에서 수행되는 것을 의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화하는 구조에서 인지되는 것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피로”의 사회적 확산은 노인의 소외를 조장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나이 계층 언어가 서양 언어에서 극복되는 한 사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언어는 동양 언어 특히 한국 언어보다 나이 계층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서양 언어에서도 나이나 신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호칭의 위계적 계층성을 어떻게 극복하

는가? 나이나 신분이 앞 선 화자가 “우리 개인 이름으로 통하기로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가족 이름(姓)이나 경칭이 아니라 개인 이름(名)으로 부르는 것이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이나 실천을 친근성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표현이나 의사 소통의 평등과 자유라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찰들을 근거로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이 계층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이가 앞 선 사람이 먼저

(라4) 우리 말 튼시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물론 말 트는 것은 반 말 하기가 아니다. 여기에서 말을 트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다8)의 조건을 따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5) 다음은 “싸이(PSY)” 그룹의 “반말합시다”의 노래 가사이다:

(가뜩이나 세상 팍팍해 죽겠는데 여러분 반말합시다 원 투 애들아)
 말끝마다 야야야/ 니가 나이가 많으면 다냐 야야야/ 너 아냐 이 기분/
 장난해 지금/ 동방 예의 지국/ 말세로군 어따대구 언제 봤다구/
 덕떡 반말하구 나를 눈두렁 꺾다구로/ 보는 거냐 너 미친 거냐/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야/ 몇 살이나 어리다고 맨날 어이라고 불러/
 너 이놈의 자식 어이/ 존댓말 쓰는 것도 화가 나는데/
 여기가 군뎨줄 착각하는 데/ 너 말이 짧다 말이 많다/
 너 많이 컸다 사람이 크지 주냐/ 우리나라 대화는 일방통행/
 한 번 막히면 평생 고생/
 (HOOK)

야야야 반말합시다/ 야야야 반말합시다/ 왜 입장 바꿔서/
 꼭 당하고 나서야 아는 지 몰라/ 자꾸 욕박 지르면 참을 수/
 없다는 걸 대체 왜 몰라 워워워/
 내가 돈이 없나 빛이 없나/ 잔 심부름만 맨날 시켜요 겁나/
 아니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아쉬우면 니가 해라 임마/
 내가 첫사랑하고 이루어졌다고 치면/ 내 아들이 지금 중학생이야 임마/
 말끝마다 임마라니까 어때 괜찮지/ 임마임마 하지마라 기분 나빠 임마/

5. 결론 : 언어 인문성은 당위인가 현상인가?⁵⁾

말 트기가 인문적이고 위계적 언어사용이 반인문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설에 설득력이 있다면, 위계적 언어 사용을 단순한 객관적 현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철학이나 언어학은 위계적 언어 사용의 비인문성을 분석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계적 언어 사용의 극복 방안이 보다 세련되게 제안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개인간 최종적 갈등의 대부분은 반말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네티즌 언어는 그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언어 평등성이 돋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그 지성공동체에 부과하는 과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인다.⁶⁾

왜 바뀌니까 축졌냐/ 니가 지금 나라면 넌 웃졌냐/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벨냐/ 평소에 잘해라 알겠냐/
 모르겠냐 정신없지/ 당해보니 답지 무섭지/
 니가 아무 생각없이 던져버린 부메랑/ 다시 너의 등뒤로간다 조심해라/
 (HOOK)

말 놓고 기분 좋고/ Everybody 친구 먹자/ 야 말고 어이 말고/
 불러봐 내 이름 석 자/ 말 놓고 기분 좋고/ Everybody 친구 먹자/
 야 말고 어이 말고/ 불러봐 내 이름 석 자/
 (HOOK2)

야야야 반말합시다/ 야야야 반말합시다/ 반말합시다 같이갑시다/
 반말합시다 Everybody/ 반말합시다 같이갑시다/ 반말합시다/

- 6) 이 논문의 초고는 국제언어인문학회의 “한국에서의 언어연구, 그 현주소를 묻는다”라는 주제의 2003년도 심포지움에서 읽은 것이다. 이 초고에 대한 논평 그리고 토론이 있었다. 여기에서 얻은 통찰, 토론, 비판은 다음 기회의 연구에서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참여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인용문헌

- 선우환. 「민음에 대한 퍼즐, 명제, 그리고 직접적 지시」, 『한국철학자대회 2000』 제3권, 한국철학회(2000), 2-18.
- 선우환. 「반말과 계층 구조」, “한국에서의 언어연구, 그 현주소를 묻는다”, 국제언어인문학회 심포지움(2003), 논평문, 본지 본호 개재.
- 이익환. “Jon Barwise and John Perry, Situations and Attitudes”, 『언어』, 제11권 제2호 (1986), 316-322.
- 정대현. 「한글전용의 의미론」, 『세계의 문학』, 1994년 가을.
- _____. 『맞음의 철학: 진리와 의미를 위하여』,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7.
- _____. 『심성내용의 신체성』, 서울: 아카넷, 2001.
- Barwise, Jon and Perry John. *Situations and Attitudes*, MIT Press, 1983.

[Abstract]

Hierarchical Regimentation of Korean Language Uses

Dai-Hyun Chung
(Ewha Womens University)

One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n language is that it has a fine hierarchical regimentation of language uses, perhaps finer than English, Chinese or Japanese. If English language uses have a hierarchical structure they are to be thick. You may respond to any of your male colleagues often by saying either “Yes, Sir” or “Yes, John”. But Korean speakers attend to the fine grades of differences of social positions of a speaker and a hearer and they show the respect of the difference by adding or dropping relevant suffixes of verbs which Korean language has developed. For example, one year difference would affect how you

choose a suffix of verbs you use to speak to your hearer and two year difference often leads to the adoption of still another fitting suffix of the same verb. One year criterion works not only in army barracks, school dormitories but also in government offices, business sectors. Korean speaking people have been taught to use this finely regimented hierarchical language.

I try, in this paper, to develop the idea that hierarchical regimentation of Korean language uses is not humane. I offer the main argument for the thesis as what follows: How could one justify the hierarchical regimentation of a language like Korean? Only if there is an essential structure in which the fine grades of differences of social positions of all the people are distinct; The essentialism here involved is not plausible. And I may add that language is to be used for the purposes of communication, rationalization and expression. If true, language use is a genuine art of liberation or humanization. Any overt hierarchical language tends to damage those purposes and more to enforce those oppressive elements already existing in the community. Then, a hierarchical language is to defeat its own purpose.